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드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수출통제, 중국】 중국, 반도체 소재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 【면화, 중국】 美 '신장산 물품 수입금지 1년 만에 中 면화 재배면적 10% 급감
- 【광물, EU】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협의
- 【광물, 인도】 인도 광산부, 핵심 광물 30종 선정
- 【원자재, EU】 EU, 알루미늄 '전략원자재' 지정 추진
- 【에너지, 독일】 독일, 매칭보조금 활용한 태양광 산업 리쇼어링 추진
- 【배터리, EU】 인도 정부, 배터리 업계에 3조 원 규모 보조금 지급 검토
- 【전기차, 미국】 美, 전기차 전환 가속...가동중단 공장 등 20억 달러 지원 의향
- 【반도체, 미국】 美,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추가 제재 검토
- 【반도체, 네덜란드】 네덜란드, ASML社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예고

○ 공급망 뉴스 더하기

일본 新반도체 산업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 공급망 전문가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 공급망 소식통

- ① 2023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GBPP) 개최 안내
- ②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7.19)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수출통제, 중국] 중국, 반도체 소재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 7.3일(현지시간) 中 상무부·해관총서는 '23.8.1일부터 갈륨·게르마늄(저마늄) 수출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
 - 갈륨·게르마늄 및 화합물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하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의 승인 필요
- 수출통제 대상은 반도체·전기전자·태양광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14종* 갈륨·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 포함
 - * 수출통제 대상 품목 : 금속 갈륨, 질화 갈륨, 산화 갈륨, 인화 갈륨, 비소화 갈륨, 인듐 갈륨 비소(InGaAs), 셀레늄화 갈륨, 갈륨 안티몬화물(GaSb), 금속 게르마늄, 게르마늄 잉곳, 인게르마늄아연, 게르마늄 기판, 이산화 게르마늄, 사염화 게르마늄 총 14종
 - 갈륨은 집적회로·발광다이오드(LED)·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광섬유·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사용되는 금속
 - 중국은 세계 갈륨·게르마늄 광물 생산량에서 각각 97.7%, 67.9%를 차지하며, '21년 기준 전세계 갈륨·게르마늄 생산량 430톤·140톤 중 중국 생산량은 각각 420톤·95톤
- 외신은 이번 조치를 "미국이 주도하는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해석하며, 첨단기술 분야의 美中 기술 개발 경쟁이 격화될 전망

출처: 중국 상무부(23.7.3), 외신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면화, 중국] 美 '신장산 물품 수입금지' 1년 만에 中 면화 재배면적 10% 급감

- 6.3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이 中 신장 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현지에서 생산한 면화 수입을 금지한 이후, 1년 만에 중국의 면화 재배면적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中 국가면화정보센터는 최근 中 당국의 식량 안보 우려로 곡물 생산 증대를 강조하면서 농민들이 면화 대신 곡물 생산에 나선에 따라, 중국의 면화 재배면적이 약 2만 7,600km²로 1년 전 대비 10.3% 감소했다고 밝힘
- '22년 기준 중국 전체 면화 생산량의 90%를 차지했던 신장 위구르자치구는 '23년 489만 무의 경작지를 추가로 식량 생산에 할당하라는 명령을 받음
 - 지난 4월에는 신장 지역 면화 재배 농부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고, 폭우·저온·모래바람 등 일련의 악천후가 면화 파종에 타격을 가하면서 많은 농부가 옥수수 등 다른 작물로 전환
 - '22.6월 발표된 美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이 신장 면화를 직격하면서 지난 2월 신장산 제품의 對美 수출액이 49만 7천 달러(약 6.5억 원)로 전년 동월 대비 90% 급감했는데, 이는 '17년 이후 최저 기록
 - * 강제노동법은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용추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완제품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산 원료·반제품·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제품도 수입금지 대상으로 규정

출처: 연합뉴스(23.6.3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광물, EU]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협의

-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함**
 -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로베르트 하벡 재무장관, **프랑스** 르 메르 재무장관 및 **이탈리아** 아돌포 우르소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동 선언문은 러-우 전쟁 및 코로나19 이후 중국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광물 공급망의 과도한 의존이 문제로 부각되었다고 지적함
 - 또한 EU **'핵심원자재법(CRMA)'**이 EU의 핵심광물 역내 확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3개국의 **전략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공동 협동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3개국 공동 핵심광물 재고 확보 및 공동구매**, ▲**전략적 핵심광물 채굴**, ▲**가공 및 재활용을 위한 워킹그룹 설치** 등이 제시됨
- 더불어 해당 3개국은 유럽 차원의 전략적 안건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일련의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06.27)

■ [광물, 인도] 인도 광산부, 핵심 광물 30종 선정

- 6.28일(현지시간), **인도 광산부는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핵심광물' 30종 선정 발표**
 - * 경제발전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며, 수급 위기 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광물
- 자립인도 경제부양(Atma Nirbhar Bharat) 및 2070 넷제로 실현을 위해 인도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대상, 관계부처 의견 수렴 후 경제적 중요성, 공급 리스크 등을 평가하여 30종 선정
 - * 친환경 에너지·전기차·국방·농업·제약 등 핵심산업 필수광물 안정적 확보

★TIP★ 인도 광산부 선정 30종 핵심광물

안티모니, 베릴륨, 비스무스, 카드뮴,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흑연, 하프늄, 인듐, 리튬, 몰리브덴, 니오븀, 니켈, 백금족, 인, 칼리, 희토류(17종), 레늄, 셀레늄, 규소, 스트론튬, 탄탈륨, 텔루륨,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바나듐, 지르코늄

* (수입 의존 100% 품목) 베릴륨, 코발트, 게르마늄, 리튬, 니오븀, 니켈, 탄탈륨, 바나듐, 레늄, 스트론튬

** (인, 칼리) 인도는 농업이 국내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바,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

- 인도 중앙정부는 광물 자원의 자립 및 안보를 중점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 중이며, **광산부 내 담당센터 설치*** 및 **인도 지질조사원(GSI) 핵심광물 탐사기능 확대 예정**

* CECM(Centre of Excellence for Critical Minerals) 설치를 통해 핵심광물 상시 모니터링 및 목록 주기적 업데이트

출처: Mine Ministry of India(23.6.28) 등 언론보도 KOTRA 뉴델리무역관 종합

■ [원자재, EU] EU, 알루미늄 '전략원자재' 지정 추진

- 6.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핵심원자재법 전략 원자재 목록에 알루미늄 포함 요청
 - 이사회는 개정안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보크사이트(알루미늄 원광), 산화알루미늄(알루미늄 원료) 등 각 가공 단계 물질도 추가 예정
 - 집행위에 따르면, 리튬 등 다른 금속* 수급 대응이 우선시되어 당초 알루미늄이 전략원자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추후 전략원자재로 지정될 경우 보크사이트 채굴 및 알루미늄 제련소 등 허가·기금지원 절차 가속화 전망
 - * '20년~50년 알루미늄 수요 43%, 구리 51%, 리튬 2,109% 증가 (출처: Eurometaux)
- 알루미늄은 배터리·운송·태양광·전력네트워크(풍력터빈, 그리드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그린·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전략적 중요성 증대
 - 러·우 사태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EU 역내 제련소 생산량이 50% 감소하고, 저가 고탄소 알루미늄 수입이 증가하면서 EU 자체 공급 역량 약화*
 - * EU의 알루미늄 역외 의존도는 55%로 주요 공급국으로는 기니(62%), 브라질(12%), 그리스(10%) 등 (출처: EU 집행위)
 - 유럽 알루미늄협회는 역내 알루미늄 2차 원자재 수거·분류·재활용 촉진 필요성 주장

출처: 파이낸셜타임즈(23.6.23)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에너지, 독일] 독일, 매칭보조금 활용한 태양광 산업 리쇼어링 추진

- 6.23일(현지시간) 유럽정책 뉴스매체 유로액티브(Euractiv)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태양광 모듈·부품·필수 원자재 가공 또는 재활용 기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매칭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
 - * EU 집행위 '임시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의 일환으로, 역외 투자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제3국에서 지원받을 예정인 보조금과 동일한(matching) 규모로 지원
 - 제3국으로부터 지원 증빙 등의 요건이 있으며, 생산 용량·기술 기후·환경표준을 고려하여 경제 낙후지역 우선 선정 예정
 - 신청은 '23.8.1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독일연방 관보에 게시 예정으로 향후 풍력터빈 및 전해조 생산시설에도 유사하게 지원할 계획
-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자체 제조역량이 곧 에너지 안보와 직결” 된다고, 독일의 에너지 전환 관련 생산역량 유치·확대에 총력을 다할 전망
 - 독일 정부의 해당 계획은 유럽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Meyer Burger社가 독일 태양광 전지 공장 확장 계획을 중단하고, 美 IRA 혜택에 따라 미국에 새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로 해석됨
 - 독일은 과거 태양광 제조 강국이었으나, '15년 정부 지원 삭감 등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점감

출처: Euractiv(23.6.23)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배터리, 인도] 인도 정부, 배터리 업계에 3조 원 규모 보조금 지급 검토

- 인도 정부는 2,160억 루피(약 3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배터리 업계에 지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임
 - 인도 전력부가 제출한 계획 초안에 따르면 인도 내 50GWh 규모의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을 구축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 인도의 기존 배터리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용 배터리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동 계획은 전력 공급망(그리드)에 사용되는 배터리 생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임
 - 국제 여론과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이 어려운 가운데 인도 정부는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500GWh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인도는 전체 전력의 4분의 3을 화석연료로 생산하고 있음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전력 생산의 변동이 커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수적임
- 더불어 인도 정부는 동 문건에서 "배터리 제조 능력 구축을 위해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중국에서 막대한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경쟁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배터리 관련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부연함

출처: FT(23.06.28)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전기차, 미국] 美, 전기차 전환 가속...가동중단 공장 등 20억 달러 지원 의향

- 미 정부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20억 달러(약 2조 6천억 원)를 운영이 어려운 전기차 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미 에너지부 차량기술실(VTO)은 의향서(Notice of Intent)*를 통해 최근 가동을 중단했거나 곧 폐쇄 예정인 공장 개조·재정비 프로젝트에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 예비 의사 발표에 불과해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혹은 전혀 공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함
- 동 사업의 목적은 미국 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사회 일자리를 지키는 데 있음
- * 지난 4월 미 환경보호국(EPA)은 '32년까지 신차 시장의 3분의 2가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한 바 있음
- 의향서 발표 전날, 전기차 스타트업 로즈타운 모터스가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파산보호를 신청하였고,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에는 선두 주자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만 남은 상황임
- 지원 계획이 확정될 경우 개별 지원금은 2천5백만 달러(약 330억 원)에서 5억 달러(6천5백억 원) 사이가 될 예정이며 해당 보조금은 '31년 9월까지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출처: 연합뉴스(23.06.29)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반도체, 미국] 美,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추가 제재 검토

- 미 정부는 '22년 10월에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올 7월 초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
 - 새 안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사전에 미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중국 AI 업체의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도 금지될 전망이다
 - 동 조치는 지난해 공개한 규제안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AI 시장 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됨
- 동 조치에 따라 중국 AI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엔비디아 등 관련 기업의 반발이 잇따름
 - 엔비디아는 '22년 AI용 GPU 반도체 A100 등의 수출이 제한되자 저사양 반도체인 A800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여 왔으나, 이번 조치 이후 저사양 제품 수출에도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예정임
 - * 엔비디아 매출의 중국 의존도는 약 20~25%
- 한편 미 수출통제가 강화될수록 중국 밀수 시장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지난 2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밀수 GPU 확보 중개를 위해 수천 명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밀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 세계 최대 전자 도매 시장인 중국 광둥성 선전시 화팡베이 상가의 한 공급업체는 A100을 다량 확보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공식 권장가의 약 1.8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힘

출처: 헤럴드경제(23.06.28)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반도체, 네덜란드] 네덜란드, ASML社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예고

- 6.3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는 ASML社 노광장비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 규정 발표
 - 네덜란드 정부는 '19년 ASML社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對中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 발표를 통해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로 수출통제 대상 범위 확대
 - * 지난 3월 네덜란드 정부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예고한 바 있음
 - '23.9.1일부터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3종 제품 수출 시 네덜란드 당국의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통제 대상은 고사양 DUV 제품 3종(△TWINSKAN NXT:2000i, △NXT:2050i, △NXT:2100i)
- 미국 정부도 7월 말경 공개될 규정에서 중국 기업*으로의 저사양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수출을 통제할 예정
 - * 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SMIC 등 6개 중국 기업이 대상
 - 미국은 그동안 동맹국에게도 對中 수출통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로이터통신은 日니콘과 도쿄 일렉트론 역시 7.23일부터 23종의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

출처: 로이터통신(23.6.29), 블룸버그(23.6.3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공급망 뉴스 더하기 : 일본 新반도체 산업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90년대 이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의 日 점유율이 10%대까지 하락하였고, 현재까지도 이전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3단계 실행계획에 기반한 '21.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의 新반도체 산업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자.

■ 일본 반도체 산업 현황

- IC Insights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日 점유율은 '88년 50.3%였으나, '19년 10%*대로 정체
 - * 미국 50.7%, 한국 19%, 유럽 10%, 대만 6%, 중국 5%
- '19년 일본은 개별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로직·아날로그·메모리 분야에서 10% 미만의 점유율에 그쳤으나, 플래시 메모리(NAND형), 자동차·공장자동화(FA)용 MCU, CMOS 이미지센서, 파워반도체는 비교적 높은 점유율* 보유
 - * '18년 기준 플래시 메모리(NAND형)는 키옥시아사가 삼성전자(36%)에 이어 세계 2위(19%), CMOS 이미지센서는 소니사가 세계 1위(54%) 시장점유율 보유

■ 일본의 新반도체 전략 개요

- '21.6월 日 경제산업성은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 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23.4월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개정안)」 발표를 통해 로드맵 구체화
 - (1단계) 日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 강화, (2단계) 차세대 반도체 설계기술 확보, (3단계) 미래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등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미국·대만·벨기에 등 우호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적극 구축 중
 - 日 정부는 단계별 성과 창출을 위해 '22년 추경예산 중 '첨단 반도체의 日 국내 생산거점 확보(1단계)'에 4,500억 엔(약 4.7조 원), 차세대 반도체 제조를 위한 '포스트 5G 시스템 기반강화 연구 개발사업(2단계)'에 4,850억 엔(약 4.4조 원) 출자

〈日 정부의 단계별 반도체 전략 요약〉

구분	①국내 생산기반 강화	②차세대 설계기술 확보	③미래 기술의 연구개발
첨단 로직 반도체	국내 제조거점 정비	2nm 로직 반도체의 제조기술 개발, Beyond 2nm 반도체 연구개발(LSTC)	광융합 등 게임체인저 미래 기술 개발
첨단 메모리 반도체	미국과 연계해 국내 설계·제조거점 정비	NAND, DRAM의 고성능화, 혁신 메모리 개발	혼재 메모리 개발
산업용 특화 반도체	종래형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SiC 파워 반도체 등의 성능 향상, 저비용화	GaN-Ga2O3 파워 반도체
첨단 패키지	첨단 패키지 개발거점 설립	칩렛 기술의 확립	광칩렛, 아날로그·디지털 혼재 SoC 실현
제조장치·부소재	제조장치·부소재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Beyond 2nm에 필요한 차세대 재료 실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	미래 기술 상용화를 향한 기술개발
국제 연계	해외 파운드리(TSMC)와 합작공장 설립 지원	美 日 연구기관(NSTC, LSTC), 美 IBM, 벨기에 imec 등과 연계	美, EU,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한국, 대만 등 연구개발 협력 추진

■ 단계별 반도체 공급망 구축 전략

①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 강화 (미국·대만 연계)

- 일본 덴소·소니와 대만 TSMC의 반도체 솔루션 합작회사인 JASM(Japa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은 日 반도체 산업전략 1단계의 핵심 프로젝트
- JASM의 쿠마모토현 제 1공장은 소니 그룹의 이미지센서 사업에 들어갈 반도체 28nm 세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제 2공장은 12nm 세대의 양산을 통해 자동차의 화상처리용 IC 등 용도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 日 경제산업성 카나자시 정보산업과장은 “TSMC 일본 공장 설립은 일본 산업 내 수요가 큰 28~12nm 범위의 로직 반도체 수급에 기여할 것이며, 現 일본 반도체 양산 기술의 한계는 40nm로 이를 보완하는 프로젝트”라고 언급

〈해외기업 투자를 통한 日 첨단반도체 공장 현황〉

구분	투자 기업			
관련 사업자	TSMC, SONY	KIOXIA, Western Digital	Micron	
국가	대만	미국	미국	
승인일	'22.6.17	'22.7.26	'22.9.30	
최대 보조금	4,760억 엔	929억 엔	465억 엔	
계획	장소	쿠마모토현	미에현	히로시마현
	주요 제품	로직 반도체(22/28nm·12/16nm)	3차원 플래쉬 메모리(6세대)	DRAM(1β세대)
	생산능력	5.5만 장/월 (12인치 환산)	10.5만 장/월 (12인치 환산)	4만 장/월 (12인치 환산)
	초회 출하	'24.12월	'23.2월	'24.3~5월
	납입처	일본 고객 중심	메모리, 스마트폰, PC, 데이터센터, 자동차 등	자동차, 의료기기, 인프라, 데이터센터, 5G, 보안 등
	설비 투자액	약 86억 달러	약 2,788억 엔	약 1,394억 엔

② 차세대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 (미국·벨기에 연계)

- 日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Beyond 2nm) 설계기술 개발을 위해 개방형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하고, 향후 차세대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거점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연구기관 LSTC와 Rapidus社 설립을 지원*
 - * 제조기술 : 美 IBM의 GAA(Gate All Around) 노하우 전수, EUV 노광장치 획득(24년 말), 벨기에 imec의 미세화·링그라피기술개발 지원
- Rapidus社는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 일본 주요 기업 8개사 출자로 출범하였으며, '27년까지 차세대 로직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10년간 5조 엔의 설비투자를 계획 중 (日 정부는 700억 엔 지원 결정)
- Rapidus社는 미국 IBM과 2nm 노드 반도체의 공동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유럽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벨기에 IMEC과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관한 MOC(협력각서) 체결

③ 미래 기술의 연구개발 (다양한 유지(有志)국과 연계)

- 반도체·산업전략 3단계에서는 광전 융합·양자 등 기술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30년 이후 본격 구현될 양자컴퓨터 등 새로운 사례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연구개발을 진행
- 이를 위해 미국, EU, 한국,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대만 등과 차세대 반도체 실용화 사례를 창출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

○ 공급망 전문가 :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 도원빈, 허슬비(2023.6.27),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 요약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러시아도 이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응 시나리오를 5가지로 제시하고, 각각의 경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보자.

〈러시아 보고서 시리즈〉

(64호)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65호) 종전 이후 한국의 기회요인

■ 전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러시아의 보복성 대응조치는 5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음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

구분	내용
대응 없음	① 러시아의 보복성 대응 자제
포괄적 보복	②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원자재 공급 통제 강화
	③ 흑해 곡물협정 연장 거부
	④ 러시아 진출 해외기업에 대한 불이익 강화
지정 보복	⑤ 특정 품목에 대한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통제

■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22년 기준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함

〈한국의 주요 수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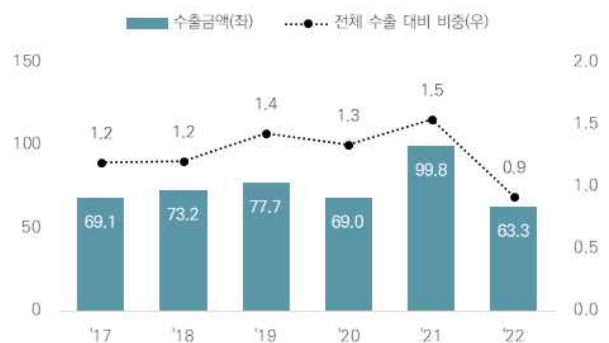
(억 달러, %)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1	중국	1,557.9	22.8
2	미국	1,097.7	16.1
3	베트남	609.6	8.9
4	일본	306.1	4.5
5	홍콩	276.5	4.0
21	러시아	63.3	0.9
-	세계	6,835.8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22년 기준

〈대러시아 수출금액 및 비중 추이〉

(억 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또한 '22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품목 10,957개 중 대러시아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의 개수는 23개로, 전체 대비 비중이 0.2%에 불과

- 다만 ▲방사성동위원소, ▲비합금선철, ▲페로실리콘크로뮴(제강용 원료)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對러시아 수입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2년 대러시아 수입의존도(%) : 방사성동위원소(100%), 비합금선철(97.0%), 페로실리콘크로뮴(92.2%)

<2022년 대러시아 수입의존도 구간별 품목 개수 및 수입금액>

대러 수입의존도	품목 개수	비중	해당품목 대세계수입	비중
90% 이상	23	0.2	10	0.1
70% 이상 90% 미만	20	0.2	22	0.3
50% 이상 70% 미만	20	0.2	6	0.1
30% 이상 50% 미만	26	0.2	26	0.4
10% 이상 30% 미만	60	0.5	199	2.7
10% 미만	10,808	98.6	7,050	96.4
총계	10,957	100.0	7,314	100.0

(억 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품목은 HSK 10단위로 구분, 2022년도 대세계 수입금액이 0달러인 품목은 제외

■ 다만 러-우 전쟁 이후 석탄의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러-우 전쟁 격화에 따라 대만, 일본,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 비중을 '21년 대비 낮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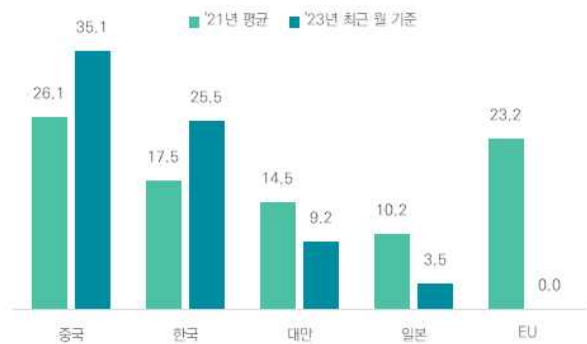
- 대만 : ('21평균) 14.5% → ('23.1월) 9.2%
- 일본 : ('21평균) 10.2% → ('23.3월) 3.5%
- EU : ('21평균) 23.2% → ('23.2월) 0.0%

- 반면 한국·중국은 러시아 석탄 수입 비중이 '21년 대비 높아짐

- 한국 : ('21평균) 17.5% → ('23.4월) 25.5%
- 중국 : ('21평균) 26.1% → ('23.2월) 35.1%

<주요국 대러시아 석탄 수입의존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중국(4월) 한국(4월) 대만(1월) 일본(3월) EU(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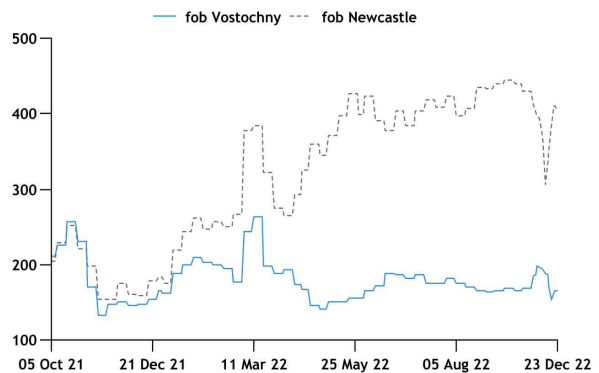
■ 한국은 러시아의 주요 석탄 수출항 중 하나인 보스토치니(Vostochny) 항구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석탄 수출 가격을 인하하면서 우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러시아-한국 해상경로>



<러시아산 석탄과 호주산 석탄 가격 차이>

(달러/톤)



자료 : Argus

주 : Vostochny는 러시아, Newcastle은 호주산 석탄을 의미

○ 공급망 소식통 : 2023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GBPP) 개최 안내

■ GBPP 2023 행사 개요

- ▶ 행사명 :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 2023 (Global Bio & Pharma Plaza 2023)
- ▶ 일시 : '23.9.14(목)~15(금)
- ▶ 장소 : 서울 롯데호텔월드
- ▶ 분야 : 원료·완제 의약품,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의약품 개발 기술
- ▶ 규모 : (국내기업) 100개사 내외 / (해외바이어) 70개사 내외
-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GBPP 2023이란?

-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 2023(GBPP 2023)은 국내 우수 제약·바이오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제약·바이오 분야 1:1 비즈니스 상담회, 국가별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시장 현황 및 진출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 설명
① 1:1 수출상담회	▶ 바이어-국내기업간 파트너링 및 1:1 수출상담회
② 진출전략 설명회	▶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및 국가별 등록제도 설명회 ▶ 해외 투자 M&A 지원 및 매물 설명회 ▶ 글로벌 기업 협력 수요 설명회
③ 계약체결식	▶ 바이어-국내기업간 계약체결식 개최 지원 (15만불 이상의 현장계약 건)

■ 참가 신청 안내

- 신청 기한 : ~'23.7.7(금)
-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클릭) → '사업신청' 탭 클릭 → 'GBPP' 검색 →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첨부란에 신청양식(엑셀) 및 제품소개서 업로드
- 제출 서류 : 1) 참가신청서(공고문 내 신청양식 활용) 1부, 2) 해외 마케팅 희망 제품 국·영문 카탈로그 각 1부
- 문의처 : KOTRA 바이오의료팀 (☎02-3460-7626, 7621 / me_hq@kotra.or.kr)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출진흥팀 (☎02-2162-8062 / ranah@kpta.or.kr)
- 유의 사항 : 1:1 상담매칭을 위한 상담주선 웹사이트* 추후 이메일 안내 예정

* 기업별 사이트 가입 및 바이어 대상 상담 희망 제품정보 개별 등록 필요

○ 공급망 소식통 :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 (7.19)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8일 DEPA 가입협상이 타결되었으며, 한-EU 디지털통상 협정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통상 전문가를 초청하여 통상규범의 논의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업계의 관심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23년 7월 19일(수) 14:00~17:00
- 장소 :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국제경제법학회 /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Opening Session		
14:00-14:05 (5)	개회사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14:05-14:10 (5)	환영사	-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14:10-14:15 (5)	축사	- 강준하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Session I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디지털 통상		
14:15-14:35 (20)	발제	- 유명희 서울대 겸임교수 (前 통상교섭본부장)
14:35-15:10 (35)	패널토론 · Q&A	▶ 사회자 - 정찬모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널 -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
Session II : 디지털통상협정의 주요 이슈		
15:10-15:30 (20)	발제	권현호 성신여대 법대 교수
15:30-16:10 (40)	패널토론 · Q&A	▶ 사회자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패널 - 이주형 김앤장 변호사 - 김민정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 이규엽 KIEP 신통상전략팀장
Session III : 디지털통상과 비즈니스		
16:10-17:00 (50)	Round Table · Q&A	▶ 사회자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패널 - 디지털 기업 및 업계 전문가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 02-6000-5071, ✉ jh.han@kita.or.kr)

글로벌 경제지표(23. 7. 4. 화)

[환율]

	'21말	'22말	'23.5말	6/30	7/3	7/4	전일비	22말비
₩/U\$	1,186.30	1,188.80	1,327.20	1,317.70	1,308.00	1,301.40	△0.50	2.92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323.10	1,316.10	1,306.20	1,299.50	△0.51	2.70
₩/CNY	166.04	186.51	186.31	181.05	180.37	180.28	△0.05	△0.64
₩/Y100	1,051.19	1,032.48	951.13	911.40	904.13	900.93	△0.35	△4.72
Y/U\$	103.34	115.14	139.54	144.58	144.67	144.45	△0.15	8.02
U\$/EUR	1.2279	1.1318	1.0684	1.0857	1.0891	1.0906	0.14	2.72
CNY/U\$	6.5305	6.3681	7.0991	7.2539	7.2517	7.2193	△0.45	3.68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95.9 (₩/¥100) 960.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7.3(전일)	'23.7.4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5.21	75.20	0.0	3.4	△3.6	
					0.0%	4.7%	△4.5%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10.55	110.50	0.0	31.0	△6.8	
					0.0%	39.0%	△5.8%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355.00	8,349.00	△6.0	1349.0	△38.0
						△0.1%	19.3%	△0.5%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107.00	2,102.50	△4.5	22.5	△258.0
						△0.2%	1.1%	△10.9%
	니켈	19,100.00(7.5일)	30,425.00	20,160.00	20,300.00	140.0	1200.0	△10125.0
						0.7%	6.3%	△33.3%

[반도체]

	'21	'22	'23.3월	'23.4월	'23.5월	6/29	6/30	7/3	7월(~3)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71	1.63	1.58	1.50	1.50	1.50	1.50
(%, YoY)	29.9	△23.0	△55.5	△54.8	△53.9	△52.4	△52.2	△51.8	△51.8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42	6.40	6.39	6.30	6.30	6.30	6.30
(%, YoY)	14.7	10.7	△18.7	△20.9	△22.6	△8.7	△8.4	△7.7	△7.8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6.9	6.16	6.21	6.30	전주비(6.21)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979.85	934.31	924.29	953.6	3.2%	△13.9%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6.28	6.29	6.30	7.3	7.4	전일비(7.3)	'22년말비
BDI	2217	1515	1138	1112	1091	1068	1044	△2.2%	△31.1%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한국무역협회(KITA) 공급망분석팀	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허 슬 비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이 병 옥 신 재 훈 이 윤 지 전 해 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미래전략연구팀	석 주 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구독>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피드백>

※ 피드백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주관기관



협력기관

